

상담자의 발달수준에 따른 윤리적 행동문제의 이유*

정 상 화

대구대 심리학과 / 학생

금 명 자[†]

대구대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상담자들이 윤리적 갈등이나 비윤리 경험의 빈도가 높다고 평가한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였고, 수퍼비전 받은 횟수 또는 상담경력에 따라 초보, 중간, 숙련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이유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자격이 있는 상담자들을 심층 면접하여 윤리적 행동문제 이유 질문지를 구성하였고, 이를 479명에게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보집단이 중간 및 숙련집단에 비해 윤리적 행동문제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행동문제의 주요 이유로는 자격증 수련 과정 목적, 개인적 소홀함, 상담자의 불안, 기관과의 갈등 등도 있었지만 전문가로서의 판단, 더 좋은 상담을 하기 위한 준비 등도 있었다. 초보집단은 개인적 편의와 자격증 준비를 우선에 두는 경향이 있었으며 숙련집단은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을 믿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과정으로 윤리적 행동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수준별 윤리교육과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상담 윤리, 윤리적 행동문제, 상담자 발달수준, 상담자 윤리 발달

† 교신저자 : 금명자,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382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Tel : 053 850 6361, E-mail : mjkeum@daegu.ac.kr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시대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담 심리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담자의 전문적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면서 상담자의 윤리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상담에서는 상담자 자신이 상담의 도구이기 때문에 상담자 개인의 인간적 자질과 윤리성은 특별한 비중을 차지한다(최해림, 2002). 상담에 임하는 내담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열어 보임으로써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므로 상담자 앞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Francis와 Dugger(2014)는 상담관계에서는 힘의 차이가 존재하고 상담자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내담자에 대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상담자에게 엄격하고 신중한 윤리적 태도가 강조될 수 있다. Noonan(2017)은 상담자들이 자신과 자신의 상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따로 두는 것이 진정으로 내담자와 상담자 자신을 돌보는 행위라고 하면서 책임감 있는 상담자의 태도를 강조하였다.

상담윤리는 상담분야 전문가에 의해 수립된 실천 기준 또는 합의된 규율에 따른 수용 가능하거나 올바른 실천으로 정의되며(Cotton, & Tarvydas, 2007), 상담자들이 상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한 목적을 이루고 비윤리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김현아 등, 2018). 전문직은 해당 서비스 활동에 있어 최고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되며 폭넓은 자율성을 갖지만 언제나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된다(최원호, 2008). 상담분야 역시 전문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상담자에게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내담자는 물론이고 상담자도 보호하며, 상담자의 전문가적 지위와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오송희, 이정아, 김은하, 2016). Herlihy와 Dufrene(2011)도 상담전문가 텔파이 연구에서 상담전문가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이슈는 상담자들이 학회(ACA)가 제시한 윤리강령에 맞추어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 정의와 다양성의 문제,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감 강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윤리강령은 일반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다양한 상황에 맞게 답을 주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상담자들은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윤리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Corey, Corey, & Callanan, 2011). Corey 등(2011)은 윤리규정은 윤리적 책임을 행사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충분하지는 않으므로 윤리적으로 책임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할 때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윤리규정을 아는 것만으로 윤리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며, 문화적 배경에 맞춰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과 구성원 사이에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속 단체 윤리규정의 모든 사항에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윤리적인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련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Handelsman, Gottlieb, & Knapp, 2005), 상담자는 고매한 수준의 윤리적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CCPA, 2007).

상담분야는 다양하면서도 많은 윤리적인 이슈가 존재한다(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Herlihy, Dufrene, 2011). 하지만 상담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과 심각한 윤리위반에 대응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반면 전문가가 범할 수 있는 작은 위반에 대해서는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Welfel, 2005). 현실적으로 윤리위반은 상담도중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는(Corey et al., 2011)것을 감안한다면 작은 윤리적 위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Welfel, 2005). 국내 연구의 결과에서 상담자들이 내담자와의 성적관계를 가지거나 물질적 대가를 받는 등의 비교적 심각한 윤리적 문제에 있어서는 위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우홍련, 허난설, 이지향, 장유진, 2015). 반면 상담자들이 자주 경험하는 윤리적 문제들 또한 있었는데, 예를 들어 상담 수련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비윤리적 행동 실태를 연구한 강이영, 금명자, 조민희(2018)의 연구에서 ‘상담동의서는 받았지만 수퍼비전을 받는 시점에는 허락받지 않았다’는 문항에서 74.7%, ‘상담자 소진에도 상담을 진행하였다’는 문항에서는 83.6%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렇듯 많은 상담자들이 현장의 일상적인 상담과정에서 만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윤리적으로 행동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담자들이 실제 많이 경험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자들이 윤리적 행동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알고자 하였다. 최근 상담관련 학회의 윤리교육이 강화되면서 상담자들의 윤리의식이 고취되어졌음에도(강이영 등, 2018) 여전히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행동과 태도를 빈번히 나타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상담자들이 윤

리적 행동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윤리적 행동문제란 상담 현장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문제에서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거나 또는 비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명백한 비윤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가치의 충돌이나 규정과 조건들 간의 충돌 같은 윤리적 갈등에서 비윤리적으로 대처하는 문제, 비윤리적 행동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윤리적인 속도가 필요한 문제까지 포함한다.

상담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상담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윤리 문제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되었으며, 주로 윤리적 갈등 영역과 대처 방식, 윤리 인식 및 윤리 문제 경험 실태, 비윤리 행동 실태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연구 결과들은 상담자 윤리 현황과 윤리 문제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 우선, 상담자들의 윤리 교육 및 인식 수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윤리에 대한 초기 연구인 최해림(2002)의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6.4%만이 상담윤리 관련 과목을 수강하였고, 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현동(2007)의 연구에서는 학교상담자의 32.4%가 윤리강령을 한번도 읽어보지 못했으며, 50.2%가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연구인 우홍련 등(2015)의 연구를 보면 94%의 상담자들이 윤리강령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상담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윤리 문제의 영역에 대한 것으로, 성적 이중관계나 물질적 거래 같은 조항에 대해서는 상담자들이 뚜렷하게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제 위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우홍련 등, 2015).

이에 반해, 상담자들은 비밀보장 영역, 정보관리 영역, 슈퍼비전 영역, 전문가 태도 영역에서 윤리 문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이나 조직에 소속된 학교상담자(강진령 등, 2007)나 청소년 동반자(박한샘, 공윤정, 2011), 기업상담자(이은정, 이은지, 안수정, 서영석, 2019)에서 비밀보장과 관련된 갈등 경험이 많았다. Akfert(2012)도 다양한 조건에서 일하는 상담자들이 겪는 윤리적 딜레마를 확인하였는데, 대학상담센터 상담자들은 교육환경과 관련된 갈등, 학교에서 일하는 상담자들은 비자발적인 내담자와의 갈등, 사설상담소에서 일하는 상담자들은 상담료 결정과 관련된 갈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대한 경계, 다중관계, 상담자로서의 역량과 가치관에 대한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윤리 문제 경험에 있어 상담경력이 주요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우흥련 등(2015)의 연구에서는 고학위 집단과 자격증 소유 집단에서 윤리 문제를 경험한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이영 등(2018)의 연구에서도 슈퍼비전의 횟수가 30회 이상 집단에서 비윤리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학력 또는 고경력자 같은 상담경력이 높은 집단에서 오히려 윤리 문제 경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상담자들의 윤리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무사항에 대해 상담자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들이 취하게 되는 행동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Smith, McGuire, Abbott, & Blau, 1991). 또한 일반적으로 발달수준이 높다고 여겨지는 상담경력이 많은 상담자에게서 윤리 위반이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다는 결과

는 윤리적 행동문제에 대해 엄중히 돌아볼 것을 요구한다. 상식적으로 발달수준이 높아질수록 윤리적 민감성도 발달하여 윤리적 행동수준이 높을 것이라 예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여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강이영 등(2018)은 상담경험이 많아질수록 비윤리 경험 빈도가 높다고 해서 발달수준이 높은 상담자가 반드시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그렇다면 상담경력이 높은 집단에서 오히려 윤리 문제 경험이 높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Handelsman 등(2005)은 윤리란 옳고 그름을 탐구하는 것이지만 종종 그릇된 것에 관한 연구로 시작된다고 하면서 윤리적 행동문제에 대한 주목을 강조하였다. 경력이 많은 상담자들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사례를 많이 만나기 때문에 윤리 문제에 노출될 기회가 많기 마련이다. 하지만 물리적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발달된 상담자에게서 윤리 문제 경험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윤리 발달 측면에서 현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상담자 발달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상담자를 개인적, 전문적으로 발달해 가고 있는 존재로 보고 일련의 연속적이고 위계적인 단계를 거치며 성장한다고 가정한다(최한나, 2005). Stoltenberg, McNeill와 Delwarth(1998)은 4단계의 상담자 전문성 발달과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전문성의 발달에 따라 윤리성도 함께 발달한다고 하면서 초보 수준에 있는 상담자는 자신의 상담능력에 대해 걱정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며 상담을 진행하는데, 윤리에 있어서도 두려운 심정으로 정해진 윤리기준을 글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며, 능숙한 상담자는 기

법이나 기술을 편안한 마음으로 융통성 있게 내담자에게 맞추어 적용하며, 윤리에서도 윤리기준에 명시된 요구가 최소한의 규범임을 인식하고, 자기만의 특성과 선의를 이루려 한다고 하였다. Sperry(2005) 또한 상담자의 윤리 발달과 관련하여 4단계의 발달단계를 가정하였으며, 각 발달단계에 있는 상담자들이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보았다. 1단계 상담자들은 정해진 윤리기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경직된 특성을 보이는 반면 가장 높은 4단계 상담자들은 윤리규정과 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인식함과 더불어, 이를 뛰어넘어 전문적 판단을 하는 특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상담자 발달이론에 따르면 상담자는 발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윤리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윤리규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의존하는 단계에서 윤리 규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상담자 발달과 관련한 손은정과 이혜성(2002)의 연구에서는 사례 개념화를 하는데 있어 초보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 단순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반해, 전문 상담자들은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분화능력이 높았으며, 상담자의 추론에 의해 사례를 이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김계현과 이윤주(2002)의 사례개념화 수행능력과 상담 경력간의 관계 연구에서 상담경력이 높은 상담자들이 낮은 상담자들과 가장 구별되는 두드러진 점이 문제와 내담자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이해와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현동, 진명식, 유형근(2008)의 연구에서는 숙련된 상담자일수록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개념도에 나타난 개념의 수와 반응수가 많았으며, 대처방안에서도 다

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상담자가 경험한 비밀보장의 문제에 관한 이은정 등(2019)의 연구에서도 조직에서 내담자와 관련된 상담 자료를 요청할 때 초심자에 비해 숙련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양자택일이 아닌 직원과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하거나 집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제 3의 선택과 대안적인 결정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국내 상담자 발달과 관련한 연구결과들은 상담자의 윤리적 판단은 추상적 사고의 복잡성과 자아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외부에서 주어진 규정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르는 방향으로 발달해 간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현동, 2018).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발달적 변화에 따라 윤리 문제 경험이 많거나(강이영 등, 2018; 우홍련 등, 2015), 윤리적으로 갈등하는 이유가 복잡할 수 있으며(손현동 등, 2008), 실제로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탐색했지만(손현동 등, 2008; 우홍련 등, 2015; 이은정 등, 2019)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이유, 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이유들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 장면에서 자주 직면하게 되는 윤리 문제에서 어떠한 이유로 윤리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려웠는지 확인하고, 그 이유들이 발달수준에 따라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에서 윤리 문제 경험의 빈도가 낮은 성적 이중관계, 물질적 거래 등의 내용을 제외하고, 빈도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윤리적 행동문제로 제시하고, 그 이유들을 보기함에 제시하여 자기의 경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제시된 윤리적 행동문제들은 문항에 따라 윤

리강령에 분명하게 적시해놓은 것도 있고, 절대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행동들도 있다. 예를 들어 ‘수퍼바이저에게 개인상담 또는 교육분석을 받은 적 있다’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4. 상담관계, 가. 다중관계, (2) 상담심리사는 상담 할 때에 내담자와 상담 이외의 다른 관계가 있다면, 특히 자신이 내담자의 상사이거나 지도교수 혹은 평가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경우라면 그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에 근거할 때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내담자와의 상담 약속을 상담자가 먼저 취소하거나 변경하였다’는 윤리강령에 관련 조항을 찾기 어려우나 상담자의 충실성(fidelity)에서 갈등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전의 연구(강이영 등 2018)에서는 이유를 들어 확인한 바 있는 문항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상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윤리적 어려움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이는 향후 상담자들에 대한 윤리교육과 슈퍼비전에 있어 발달수준별 효과적인 내용과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방 법

본 연구에서는 2단계의 연구절차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윤리적 행동문제에 대한 이유 설문지를 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개발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단계로 되어 있다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479명이 참여하였으며, 대상자

의 성별은 여 87.03%(416명), 남 12.97%(62명)이었다. 대상자의 주된 상담기관으로는 대학교 상담센터 174명(36.55%), 공공기관 상담센터 121명(25.42%)으로 많았다. 자세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발달수준 구분

본 연구에서는 발달수준별 윤리적 행동문제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발달수준을 구분하였다. 심홍섭, 이영희(1998)의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교육수준은 자기 평가한 발달수준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 상담 경험 수준, 슈퍼비전 경험 수준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백미현, 유현실(2012)의 연구에서는 상담자 경력이 높을수록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민정, 조화진(2015) 연구에서는 슈퍼비전 경험이 많을수록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에서 슈퍼비전 경험(슈퍼비전 받은 횟수)과 상담경력이 상담자 발달수준과 관련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 상담자들을 경력별로 초보, 중간, 숙련 상담자로 나누었을 때, 세 집단 간에 발달적 차이를 나타내었다(심홍섭, 이영희, 1998; 김계현, 문수정, 2000; 손은정, 이혜성, 2002; 손현동 등, 2008; 권경인, 김태선, 조수연, 2018). 하지만 집단을 나누는 기준은 연구마다 일관되지 않았다.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우흥련 등(2015)은 교육수준과 자격증으로, 강이영 등(2018)은 자격증과 슈퍼비전 받은 횟수로, 권경인 등(2018)은 상담경력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주로 교육수준, 상담경력, 슈퍼비전 받은 횟수, 자격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경력이 많거나, 슈퍼비전 받은 횟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62	12.97
	여	416	87.03
나이	20 ~ 29세	106	22.27
	30 ~ 39세	188	39.50
	40 ~ 49세	103	21.64
	50세 이상	79	16.60
학력	학사 및 석사과정	114	23.85
	석사	251	52.31
	박사과정 이상	113	23.64
수퍼비전 받은 경험	10회 미만	174	36.55
	10회 이상 ~ 50회 미만	217	45.59
	50회 이상	85	17.86
상담경력	3년 미만	215	45.17
	3년 이상 ~ 10년 미만	214	44.96
	10년 이상	47	9.87
보유 자격증	기타 자격증	204	8.87
	2급	217	46.97
	1급	41	44.16
주된 상담 기관	대학교 상담센터	174	36.55
	초중고 및 교육청 상담실	47	9.87
	공공기관 상담센터	121	25.42
	사설상담센터	77	16.18
	병원상담센터	9	1.89
	기업상담센터	13	2.73
	기타	33	6.93
전체		479명	100.00

수가 많을수록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상담관련 학회의 자격증은 수퍼비전 경험을 자격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기에 자

격증 수준은 집단 구분의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상담경력은 3년 미만, 3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수퍼

비전 받은 횟수는 10회 미만, 10회 이상 ~ 50회 미만, 50회 이상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상담경력과 수퍼비전 경험이 모두 낮으면 초보 집단, 상담경력이나 수퍼비전 경험이 중간이면 중간집단, 상담경력이나 수퍼비전 경험이 높으면 숙련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지 개발 연구절차

1단계: 문헌조사를 통한 항목 선정

본 연구의 연구자인 상담 전공 교수 1명, 상담 전공 박사과정 1명이 상담관련 학회 윤리강령을 토대로 하여 윤리 문제에 관한 실태 조사를 수행한 선행연구(최해림, 2002; 우홍련 등, 2015; 강이영 등, 2018)를 검토하여 상담자들의 윤리적 행동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윤리 문제 경험의 빈도가 낮은 성적 이중관계, 물질적 거래 등의 내용은 제외하고, 이중관계, 사전 동의, 기록 및 정보 보호, 역량 및 전문적 책임, 심리검사, 수퍼비전 관련 조사항목을 선정하였다. 1차 논의에서는 윤리 문제 및 윤리적 갈등 영역을 검토하였으며, 2차 논의에서는 윤리 문제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난 문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빈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는 문항으로 ‘녹음 및 기록에 대한 사전 동의’, ‘축어록 내용 수정’에 대한 문항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조사된 바 없고 사소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내담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할 수 있어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동료들과 상담사례를 공유 하는 행위’에 대한 문항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하였다. 3차 논의에서는 선정된 조사항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윤리적 행동문제

는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명백한 비윤리적인 문제에서 비윤리적 행동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윤리적인 숙고가 필요한 문제까지 포함한다.

2단계: 보기항 구성을 위한 심층면접

선정된 조사항목에 대해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구성하여, 해당 영역에 대해 상담자들이 겪고 있는 윤리적 어려움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반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은 연구자가 일련의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피면담자의 반응을 깊게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면접 질문지는 인적 사항과 이중관계 2개 문항, 사전동의 및 비밀보장 4개 문항, 역량 및 전문적 책임 7개 문항, 집단상담 1개 문항, 심리검사 1개 문항, 정보보호 및 관리 2개 문항, 수퍼비전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보기항들은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자들에게 확인하여 구성하였으며, 상담자들은 이 보기항 중에서 자기에게 해당하는 것을 고르도록 하였다. 한국 상담심리학회 또는 한국상담학회 소속 상담자 7명(1급 3명, 2급 4명)을 대상으로 1시간 내외로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시 질문내용은 ‘해당 항목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이유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습니까?’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얻어진 윤리적 행동문제 이유를 바탕으로 1차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3단계: 1차 피드백 및 수정

보기항 구성을 위한 심층면접에 참여한 상담자를 제외한 15명(2급 수련생 및 2급 상담

자)의 상담자에게 1차 구성된 설문지를 이메일 또는 직접 만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제시된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더 있는지 요청하였다. 또한 각각의 이유들이 배타적으로 잘 구성되었는지 등 수정과 추가에 대한 의견을 받아 설문지를 수정해갔다. 더 이상 다른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보기항들이 배타적으로 나뉘질 때까지 설문지를 수정해갔다. 문항에 따라 4개에서 10개까지 보기항이 만들어졌다. 면접 질문지에 있었던 ‘집단 상담에서의 비밀 보장과 위험요소에 대한 불명확한 안내’에 대한 문항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인식부족에 대한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보기항 구성이 어려워 제외하였고,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단계: 전문가 검토

1차 피드백 및 수정 절차를 걸친 설문지에 대해 전문가 집단(상담심리사 1급 2명)에게 다시 피드백을 받아 반영하는 절차를 통해 타당화 하였다. 피드백의 내용으로는 위반행위의 이유가 개인의 역동 및 미약한 윤리의식 등의 개인적 문제인지, 물리적 문제 및 훈련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인지 이후 유목할 수 있는 다양한 보기항을 구성할 것이 제안되었다.

5단계: 파일럿 테스트

조사 대상자들이 응답하기 용이한지 미리 점검하기 위해 2급 수련생 2명에게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여 어휘 및 편집에 대해 수정·보완하였다. 전문가 피드백과 파일럿 테스트를 반영하여 본 연구자 2명이 최종 문항의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최종 구성된 질문지는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18개 문항과 각 문항에 대한 보기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

설문 문항은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총 18문항이었으며, 윤리적 행동문제는 경험의 횟수보다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에 ‘전혀 없음’과 ‘한 번이라도 있음’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 번이라도 해당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이 있다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보기항에서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이유를 알기 위해 2개까지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고, 이후 추가적으로 2019년 6월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설문을 진행하였다. 불성실한 답변 6명 제외하고 온라인 355명, 오프라인 12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인구통계학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들은 SAS 9.4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이 수행되었다. 먼저, 상담자들의 해당 윤리적 행동 문제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의 유무에 따른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상담자들이 해당 문항의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체 응답자의 반응을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발달수준(상담경력과 수퍼비전 경험)에 따라 집단 간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빈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담자 발달수준에 따라 윤리적 행동문제를 경험하는 이유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보기항의 이유 중 2개까지 선택한 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응답자 수가 아닌 2개의 응답을 통합한 응답의 수로 나누어서 비율을 산출하였다.

결 과

윤리적 행동문제 이유에 대한 질문지 문항과 보기항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이유 설문지는 총 18 문항이며, 각 문항에 대한 이유가 보기항으로 구성되었다(표 2). 보기항 각각은 상담자들이 해당 문항의 윤리적 행동문제를 경험하는 이

유에 해당한다. 각 문항별로 구성된 보기항이 적은 것은 4개인 것도 있고, 많은 것은 10개도 있었다. ‘상담회기 녹음 및 기록에 관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3번), ‘동료 상담자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공유하였다’(5번), ‘정식훈련을 받지 않은 상담기법이나 상담방법을 사용하였다’(7번), ‘상담이 종료된 후, 기관의 보관 규정 기간이 지난 상담 파일 및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15번) 문항에 대한 이유로는 4 ~ 5개의 비교적 적은 이유가 제시되었다. 반면 ‘카톡 등 SNS를 통해 내담자와 사적인 연락을 하였다’(2번), ‘자신이 다룰 수 없는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하였다’(10번) 등의 문항은 7 ~ 10개의 비교적 많은 이유가 제시되었다.

표 2.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유무에 대한 빈도 (n=479)

문항	문항 내용	보기항 수	전혀 없음 (%)	한 번이라도 있음(%)
5	동료 상담자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공유하였다.	4	21.22	78.78
9	상담자의 스트레스로 심리적, 신체적 상태가 소진되었을 때도 상담을 한 적 있다.	5	21.43	78.57
12	내담자와의 상담 약속을 상담자가 먼저 취소하거나 변경하였다.	5	22.06	77.94
14	상담 회기 기록 등 내담자 관련 자료를 상담실 밖으로 가지고 나온 적이 있다.	5	25.42	74.58
4	상담 기록지를 따로 USB 또는 개인메일에 보관하고 있다.	5	32.91	67.09
17	수퍼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에 대해서 수퍼비전을 안 받은 경우가 있다.	10	36.34	63.66
11	상담의 성과가 없는데도 계속 상담을 진행하였다.	6	39.92	60.08
10	자신이 다룰 수 없는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하였다.	7	46.22	53.78
2	카톡 등 SNS를 통해 내담자와 사적인 연락을 하였다.	9	49.79	50.21

표 2.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유무에 대한 빈도 (n=479)(계속)

문항	문항 내용	보기항 수	전혀 없음 (%)	한 번이라도 있음(%)
8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담자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나 교육을 받지 않은 적이 있다.	5	57.77	42.23
15	상담이 종료된 후, 기관의 보관 규정 기간이 지난 상담 파일 및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	4	60.50	39.50
7	정식 훈련을 받지 않은 상담기법이나 상담방법을 사용하였다.	4	62.18	37.82
16	내담자의 동의 없이 그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은 적 있다.	5	63.33	36.34
1	수퍼바이저에게 개인상담 또는 교육 분석을 받은 적 있다.	6	65.76	34.24
6	상담 회기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7	66.46	33.54
18	축어록 작성 시, 실제 상담 내용의 일부를 수퍼바이저에게 숨기거나 수정한 적 있다.	6	72.67	27.33
13	훈련 받지 않은 심리검사를 실시 또는 해석 한 적이 있다.	6	73.32	26.68
3	상담회기 녹음 및 기록에 관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5	86.55	13.45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유무에 대한 빈도

상담자들의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유무에 대한 빈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다’의 응답률이 50% 이상인 문항은 9개였다. ‘카톡 등 SNS를 통해 내담자와 사적인 연락을 하였다’(2번), ‘상담 기록지를 따로 USB 또는 개인메일에 보관하고 있다’(4번), ‘상담자의 스트레스로 심리적, 신체적 상태가 소진되었을 때도 상담을 한 적이 있다’(9번), ‘상담의 성과가 없는데도 계속 상담을 진행하였다’(11번), ‘내담자와의 상담 약속을 상담자가 먼저 취소하거나 변경하였다’(12번), ‘수퍼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에 대해서 수퍼비전을 안 받은 경우가 있다’(17번) 등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경험빈도가 30% 이하로

낮은 문항은 ‘상담회기 녹음 및 기록에 관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3번), ‘훈련 받지 않은 심리검사를 실시 또는 해석 한 적이 있다’(13번), ‘축어록 작성 시, 실제 상담 내용의 일부를 수퍼바이저에게 숨기거나 수정한 적 있다’(18번) 3개의 문항이었다.

발달수준에 따른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유무의 차이

발달수준에 따른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유무에 대한 χ^2 검증 결과, 16개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 집단 간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빈도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cell χ^2 검증을 하였다. 초보집단의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이 다른 집단에 비해

표 3. 발달수준(상담경력과 수퍼비전 경험)에 따른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유무의 차이

문항	경험	초보	중간	숙련	χ^2
		(N / %)	(N / %)	(N / %)	
1. 수퍼바이저에게 개인상담 또는 교육 분석을 받은 적 있다.	무	110(75.34)	149(64.50)	54(54.55)	11.65**
	유	36(24.66)	82(35.50)	45(45.45)	
2. 카톡 등 SNS를 통해 내담자와 사적인 연락을 하였다.	무	105(72.92)	95(41.13)	36(36.36)	44.88***
	유	39(27.08)	136(58.87)	63(63.64)	
3. 상담회기 녹음 및 기록에 관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무	139(95.21)	192(83.12)	81(81.82)	13.64***
	유	7(4.79)	39(16.88)	18(18.18)	
4. 상담 기록지를 따로 USB 또는 개인메일에 보관하고 있다.	무	67(46.53)	63(27.27)	26(26.26)	17.40***
	유	77(53.47)	168(72.73)	73(73.74)	
5. 동료 상담자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공유하였다.	무	60(41.10)	28(12.12)	13(13.33)	49.82***
	유	86(58.90)	203(87.88)	86(86.87)	
6. 상담 회기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무	114(78.08)	148(64.63)	53(53.54)	16.61***
	유	32(21.92)	81(35.37)	46(46.46)	
7. 정식 훈련을 받지 않은 상담기법이나 상담방법을 사용하였다.	무	97(66.44)	136(58.87)	63(63.64)	2.29
	유	49(33.56)	95(41.13)	36(36.36)	
8.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담자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나 교육을 받지 않은 적이 있다.	무	92(63.01)	127(54.98)	56(56.57)	2.44
	유	54(36.99)	104(45.02)	43(43.43)	
9. 상담자의 스트레스로 심리적, 신체적 상태가 소진 되었을 때도 상담을 한 적 있다.	무	68(46.58)	26(11.26)	8(8.08)	75.51***
	유	78(53.42)	205(88.74)	91(91.92)	
10. 자신이 다룰 수 없는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 하였다.	무	106(72.60)	88(38.10)	26(26.26)	62.88***
	유	40(27.40)	143(61.90)	73(73.74)	
11. 상담의 성과가 없는데도 계속 상담을 진행하였다.	무	92(63.01)	71(30.74)	27(27.27)	47.19***
	유	54(36.99)	160(69.26)	72(72.73)	
12. 내담자와의 상담 약속을 상담자가 먼저 취소하거나 변경하였다.	무	69(47.26)	29(12.55)	7(7.07)	79.01***
	유	77(52.74)	202(87.45)	92(92.93)	
13. 훈련 받지 않은 심리검사를 실시 또는 해석한 적이 있다.	무	121(82.88)	159(68.83)	69(69.70)	9.86**
	유	25(17.12)	72(31.17)	30(30.30)	
14. 상담 회기 기록 등 내담자 관련 자료를 상담실 밖으로 가지고 나온 적이 있다.	무	70(47.95)	37(16.02)	14(14.14)	56.49***
	유	76(52.05)	194(83.98)	85(85.86)	

표 3. 발달수준(상담경력과 수퍼비전 경험)에 따른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유무의 차이 (계속)

문항	경험	초보	중간	숙련	χ^2
		(N / %)	(N / %)	(N / %)	
15. 상담이 종료된 후, 기관의 보관 규정 기간이 지난 상담 파일 및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	무	122(83.56)	116(50.22)	50(50.51)	46.85***
	유	24(16.44)	115(49.78)	49(49.49)	
16. 내담자의 동의 없이 그 사례에 대한 수퍼비전을 받은 적 있다.	무	126(86.30)	125(54.01)	52(52.53)	46.76***
	유	20(13.70)	106(45.89)	47(47.47)	
17. 수퍼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에 대해서 수퍼비전을 안 받은 경우가 있다.	무	104(71.23)	49(21.21)	20(20.20)	110.82***
	유	42(28.77)	182(78.79)	79(79.80)	
18. 축어록 작성 시, 실제 상담 내용의 일부를 수퍼바이저에게 숨기거나 수정한 적 있다.	무	125(86.81)	154(67.25)	64(64.65)	21.08***
	유	19(13.19)	75(32.75)	35(35.35)	

*** $p < .001$, ** $p < .05$

낮고, 숙련집단의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문항은 3개의 문항이었다. ‘수퍼바이저에게 개인상담 또는 교육 분석을 받은 적 있다’(1번), ‘상담 회기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6번), ‘자신이 다룰 수 없는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하였다’(10번) 문항이었다. 또한 초보집단에서 윤리 문제 경험 빈도가 낮고, 중간집단과 숙련집단에서 윤리 문제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난 문항은 13개 문항이었다. ‘카톡 등 SNS를 통해 내담자와 사적인 연락을 하였다’(2번), ‘상담회기 녹음 및 기록에 관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3번), ‘상담 기록지를 따로 USB 또는 개인메일에 보관하고 있다’(4번), ‘동료 상담자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공유하였다’(5번), ‘상담자의 스트레스로 심리적, 신체적 상태가 소진되었을 때도 상담을 한 적이 있다’(9번), ‘상담의 성과가 없는데도 계속 상담을 진행하였다’(11번), ‘내담자와의 상담 약속을 상담자가 먼저 취소하

거나 변경하였다’(12번), ‘훈련 받지 않은 심리 검사를 실시 또는 해석 한 적이 있다’(13번), ‘상담 회기 기록 등 내담자 관련 자료를 상담실 밖으로 가지고 나온 적이 있다’(14번), ‘상담이 종료된 후, 기관의 보관 규정 기간이 지난 상담 파일 및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15번), ‘내담자의 동의 없이 그 사례에 대한 수퍼비전을 받은 적 있다’(16번), ‘수퍼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에 대해서 수퍼비전을 안 받은 경우가 있다’(17번), ‘축어록 작성 시, 실제 상담 내용의 일부를 수퍼바이저에게 숨기거나 수정한 적 있다’(18번)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초보집단에서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빈도가 중간집단과 숙련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이유

상담자들이 해당 윤리적 행동문제를 경험했을 때 어떠한 이유로 하였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부록 1에 첨부하였다. 응답자들의 주된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상담자들은 ‘상담 일정을 잡거나 장소 등 연락의 편의성’의 이유로 내담자와 SNS로 연락을 하였으며(77.63%), ‘상담 진행과 관련하여 동료의 의견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공유하였다(86.79%). 또한 ‘훈련받지 않아 다소 부족하지만 내담자에게 이론적으로 맞는 기법이라는 판단’으로 정식 훈련을 받지 않은 상담기법이나 상담방법을 사용하였다(70.79%). ‘기관의 소속이므로 현실적으로 상담을 취소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워 소진되었을 때도 상담을 한 적이 있었으며(70.68%), ‘기관의 공식적인 회의 일정이나 행사 등’으로 내담자와의 상담 약속을 상담자가 먼저 취소하거나 변경하였다(72.14%). ‘상담 및 심리검사 해석 준비’를 위해 회기 기록을 밖으로 가져오거나(59.09%), ‘상담 공부를 위해’ 보관 기간이 지난 상담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47.19%). ‘수퍼바이저의 상담전문성에 대한 기대(42.38%)와 자격증 취득을 위해’(31.79%) 수퍼바이저에게 개인상담 또는 교육 분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절차를 잊어버리고 놓쳐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거나, ‘개인 업무와 개인 사정으로’(59.20%) 역량개발 연수나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도 높았다. 요약하면, 상담자들은 편의성과 개인 업무 같은 개인적 소홀함으로 윤리적 행동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목적과 기관과의 갈등으로 윤리적 행동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동료의 의견과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담자에게 맞는 기법이라는 전문가로서의 판단과 상담 및 심리검사 준비 등 성공적인 상담을 위한 과정에서 윤리적 행동문제를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수준에 따른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이유의 차이

상담자들이 해당 윤리적 행동문제를 경험하는 이유에 있어서 상담자의 발달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의 보기항이 많고 cell 당 사례 수가 적어서 유의미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문항을 제외하고 발달수준에 따른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이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7개 문항을 표 4에 제시하였다. ‘수퍼바이저에게 개인상담 또는 교육 분석을 받은 경험에 대해’ 초보집단은 수련기관에서의 권유 및 10% DC 등의 경제적 이득의 응답(11.13%)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이므로 수퍼바이저에게 부탁했다는 응답(48.57%) 또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 상담자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공유한 이유에 대해’ 초보집단은 상담에서 느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10.71%)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중간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현실적으로 수퍼비전을 바로 받기 어려운 상황의 응답(3.98%)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 훈련을 받지 않은 상담 기법이나 상담방법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숙련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스스로 공부하여 내담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되었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응답(22.22%)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중간집단에서 다양한 기법과 방법을 시도해볼 기회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는 응답(18.48%)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상담자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나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초보집단은 연수나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의 응답(18.52%)

표 4. 발달 수준별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이유의 차이

문항	보기항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이유)	초보	중간	숙련	χ^2
		(N /%)	(N /%)	(N /%)	
1	· 슈퍼바이저의 권유	6(8.57)	12(7.69)	8(10.53)	34.07***
	· 슈퍼바이저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기대	0(0.00)	10(6.41)	0(0.00)	
	·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편의성	4(5.71)	12(7.69)	4(5.26)	
	· 수련기관에서의 권유 및 10% DC 등의 경제적 이득	8(11.43)	14(8.97)	0(0.00)	
	· 상담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담에 대한 기대감	18(25.71)	68(43.59)	42(55.26)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이므로 슈퍼바이저에게 부탁	34(48.57)	40(25.64)	22(28.95)	
5	· 상담 진행과 관련하여 동료의 의견과 도움을 요청	144(85.71)	346(86.07)	154(89.53)	16.48**
	· 상담에서 느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	18(10.71)	20(4.98)	10(5.81)	
	· 상담의 어려움에 대해 동료에게 공감받고 위로 받는 경험이 필요	6(3.57)	20(4.98)	6(3.49)	
	· 현실적으로 슈퍼비전을 바로 받기 어려운 상황	0(0.00)	16(3.98)	2(1.16)	
7	· 내담자에게 이론적으로 맞는 기법이라는 판단	78(78.00)	128(69.57)	46(63.89)	32.71***
	· 다양한 기법과 방법을 시도해볼 기회를 갖고자 하는 욕구	8(8.00)	34(18.48)	2(2.78)	
	· 내담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 되었다는 판단	6(6.00)	10(5.43)	16(22.22)	
	· 석사과정 이상이면 모든 기법을 사용 가능하다고 보았음	8(8.00)	12(6.52)	8(11.11)	
8	· 개인 사정 및 개인 업무가 바빠서 시간적 여유 부족	58(53.70)	130(62.50)	50(58.14)	66.16***
	· 기관의 업무가 바빠서 휴가를 내기 어려움	8(7.41)	52(25.00)	14(16.28)	
	· 차비나 참가비 등 경제적 부담	22(20.37)	24(11.54)	14(16.28)	
	· 연수나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20(18.52)	2(0.96)	4(4.65)	
	· 슈퍼비전을 통하나 교육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	0(0.00)	0(0.00)	4(4.65)	

표 4. 발달 수준별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이유의 차이 (계속)

문항	보기항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이유)	초보	중간	숙련	χ^2
		(N /%)	(N /%)	(N /%)	
11	· 내담자가 거부 또는 거절당했다고 인식할까봐 우려	22(21.57)	38(12.18)	28(20.00)	31.35**
	· 슈퍼비전 받으면서 계속 진행하면 될 것 같았음	30(29.41)	104(33.33)	58(41.43)	
	· 조금만 더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	18(17.65)	78(25.00)	20(14.29)	
	· 중간에 다른 상담자에게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판단	12(11.76)	24(7.69)	4(2.86)	
	· 상담자 자신이 무능해 보일까봐 우려	8(7.84)	14(4.49)	4(2.86)	
	·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	0(0.00)	6(1.92)	0(0.00)	
14	· 상담 및 심리검사 해석 준비	96(64.00)	234(60.94)	86(50.59)	98.45***
	· 기관의 업무를 집에서 해야 할 경우	16(10.67)	66(17.19)	22(12.94)	
	· 슈퍼비전 사례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	12(8.00)	84(21.88)	54(31.76)	
	· 현실적으로 기관이나 센터에서 회기 기록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음	20(13.33)	0(0.00)	8(4.71)	
	· 기관의 일을 그만두고 진행 중인 사례를 계속 맡게 되는 경우	6(4.00)	0(0.00)	0(0.00)	
16	·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추기 위해	12(31.58)	52(25.00)	18(19.15)	42.24***
	·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2(5.26)	46(22.12)	6(6.38)	
	· 종결 이후여서 다시 연락하기 번거로움	2(5.26)	52(25.00)	24(25.53)	
	· 내담자가 방어적이거나 소극적인 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0(0.00)	14(6.43)	8(8.51)	
	· 상담초기 구조화할 때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22(57.89)	44(21.15)	38(40.43)	

*** $p < .001$, ** $p < .05$

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숙련집단에서는 슈퍼비전을 통한 교육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상담의 성과가 없는데도 계속 상담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숙련집단이 중간에 다른 상담자에게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판단의 응답(2.86%)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반면 초보집단에서는 11.76%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간집단에서 내

담자가 거부 또는 거절당했다고 인식할까봐 우려했다는 응답(12.18%)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다. ‘상담 회기 기록 등 내담자 관련 자료를 상담실 밖으로 가지고 나온 이유에 대해’ 초보집단에서 현실적으로 기관이나 센터에서 회기 기록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응답(13.33%)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수퍼비전 사례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해서였다는 응답(8.00)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다. ‘내담자의 동의 없이 그 사례에 대해 수퍼비전을 받은 이유에 대해’ 초보집단이 상담초기 구조화할 때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응답(57.89%)로 중간 집단(21.15%)에 비해 높았으며, 중간집단에서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수퍼비전이 꼭 필요하지만 내담자가 거절할까봐 우려했다는 응답(22.12%)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상담경력이 높은 상담자들에게서 윤리 문제 경험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상담자들의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이유가 상담자의 발달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윤리 문제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나, 윤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영역인 이중관계, 사전 동의 및 비밀보장, 역량 및 전문적 책임, 심리검사, 수퍼비전, 정보보호 및 관리와 관련한 항목에 대해 반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구성하여 해당 윤리적 행동문제를 경험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이후 479명

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해당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기항에서 2개까지 선택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총 18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별로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이유에 대한 보기항이 만들어졌다. 보기항이 적게는 4개, 많게는 10개로 구성되었다. 보기항이 적다는 것은 상담자들이 해당 윤리적 행동문제에 대해 비교적 단순하고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보기항이 많다는 것은 상담자들이 해당 문항에 대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녹음과 기록에 대한 사전 동의, 회기 기록 및 상담기록지 보관에 대한 항목은 4 ~ 5개가 제시되었고, 상담자의 부주의나 업무량과 개인사가 바빠서의 이유 등 비교적 현실적이고 외적인 요인이었다. 반면 전문가로의 책무에 해당하는 항목인 ‘다룰 수 없는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하거나’, ‘수퍼비전을 받지 않고 사례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7 ~ 10개의 이유가 제시되었으며, 내담자에 대한 책임감, 상담자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걱정, 평가에 대한 부담, 내담자 이익을 위한 판단 등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상담분야는 윤리적 문제에 도전을 받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Herlihy, & Dufrene, 2011). Patrik, Carson와 Mary(2017) 연구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많이 경험하는 상담자들은 소진(burnout)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과 내담자에 대한 서비스가 악화될 소지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므로 상담자들은 윤리적 갈등 및 윤리 문제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의 70% 이상이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문항은 4개 문항들이었다. 그 중 ‘상담자의 스트레스로 심리적, 신체적 상태가 소진되었을 때도 상담을 한적 있다’, ‘내담자와의 상담 약속을 상담자가 먼저 취소하거나 변경하였다’, ‘상담 회기 기록 등 내담자 관련 자료를 상담실 밖으로 가지고 나온 적 있다’는 강이영 등(2018)의 연구에서도 각각 83.6%, 58.6%, 69.8%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상담자 소진과 내담자 자료 보관의 문제는 여전히 상담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윤리 문제 영역임이 재확인 되었다. 나머지 하나는 이번 연구에서 처음 조사된 ‘동료 상담자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공유하였다’는 문항으로, 78.78%의 참여자들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내담자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경각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Thomas(2010/2014)는 적절한 상황에서만 내담자에 대해, 그리고 내담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도록 단속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한편 우흥련 등(2015)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보다 윤리 문제 경험이 낮아진 문항도 있었는데 ‘상담회기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64.4%가 경험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33.54%였으며, ‘내담자의 동의 없이 수퍼비전을 받은 적 있다’는 70.2%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36.4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상담자들의 윤리인식 및 실천의 변화된 실태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상담자들이 윤리적 행동문제를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발달수준에 따라 이유에서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의 이유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련 과정 목적, 상담일정을 잡거나 연락의 편의성의 이유, 동의절차를 잊어버리고 놓치는 등 개인적 소홀함이 있었다. 또한 내담자 거부에 대한 걱정과 수퍼바이저에게 부끄러운 부분을 내보이는 것에 대한 상담자의 불안도 있었다. 소속된 기관에서의 업무량으로 회기 기록을 하지 않거나 기관에서 배정된 사례여서 다룰 수 없는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하는 등 기관과의 갈등도 있었다. 하지만 안전여부 확인 등 위급 상황 대처를 위해 내담자와 사적인 연락을 하거나, 내담자에게 필요한 검사라는 판단으로 훈련 받지 않은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우선시 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행동문제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상담준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심리검사 해석과 수퍼비전을 받기 위해서 등 더 좋은 상담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윤리적 행동문제를 경험하였다. Orams(2017)는 존중, 공정성, 책임, 신뢰성 등의 윤리적 가치를 위반하는 것은 비윤리적이지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현실임을 지적하였다. 이런 비윤리적 행동의 수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중요한 것과 요구되는 것에 대해 혼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조직문화, 비윤리적 역할 모델, 관대한 처벌이 비윤리적 문화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화는 상담사를 포함하여 전문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상담자들에게 윤리적 도전에 직면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윤리적 상담자가 되는 것은 이론에 대한 교육과 윤리적 실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빈번한 자문과 수퍼비전, 윤리적 성찰, 강한 도덕적 원칙, 문화적

역량 개발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 사항이 모두 실패하거나 잊혀지더라도 상담자들은 항상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를 제일 위에 올려놓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이유가 상담자들의 발달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특징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초보집단이 숙련집단보다 비교적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빈도가 낮고, 또한 초보집단이 중간집단 및 숙련집단에 비해서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우흥련 등, 2015; 강이영 등, 2018)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초보집단은 수련기관에서의 권유 및 10% DC 등의 경제적 이득의 이유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이므로 슈퍼바이저에게 개인상담과 교육 분석을 받는 등 개인의 편의와 자격증 준비를 우선에 두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초보집단은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상담자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나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상담초기 구조화할 때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슈퍼비전을 받는 등 개인적 소홀함으로 인해 윤리적 행동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집단은 스스로 공부하여 내담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되었다는 판단으로 정식 훈련을 받지 않은 상담기법이나 상담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집단은 다양한 기법과 방법을 시도해 볼 기회를 갖고자 훈련 받지 않은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련된 상담자들은 전문가로서의 자신 있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Ronnestad와 Skovholt(2003)은 경험이 많은 상담자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한다고 보았다. 또한 Levit, Farry와 Mazzarella(2015)의 현상학적 연구에서 상담 실

무에서 윤리 훈련을 받은 숙련 상담자들이 자신의 가치와 옳고 그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윤리적 도전 사례에 접근하였으며, 내담자 복지를 최우선하는 과정에서, 내담자 보호와 상담자 책임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Sperry(2007)는 윤리적 발달 4단계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상담자들은 윤리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한편, 대안을 만들어 내고 권리와 책임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숙련집단의 상담자들은 상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훈련받지 않은 상담기법과 상담방법이라 하더라도 내담자에게 필요하다면 스스로 공부하여 내담자에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중간집단의 상담자들은 아직 수련 과정에 있기에 다양한 기법과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앞서 내담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수련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중간집단은 또한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슈퍼비전이 필요하지만 내담자가 거절할까봐 우려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슈퍼비전을 받았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는 중간집단이 내담자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자 하는 원칙은 있지만 윤리문제에 내담자를 참여시켜 투명한 과정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발달수준별 상담자들이 윤리적 행동문제를 경험하는 이유를 알고자 자체적으로 설문지를 개발하고 조사하였지만 연구방법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작한 상담자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이유에 대한 설문지는 경험적인 방법으로 문항이 구성되었다. 즉 실제 현장에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상담자들을 인터뷰하여 윤리적

행동문제를 경험하는 이유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이로 인해 충분히 포괄적으로 보기향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상담자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상담자의 발달수준별 특성을 반영한 이론적인 방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문지 각 문항에 대한 보기향이 4개에서 10개까지 비교적 많아 각각의 윤리적 행동문제 이유에 대한 사례수가 부족하여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상담자들의 현재의 발달수준을 반영한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에게 해당 윤리적 행동문제를 경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상담자의 현재의 발달수준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1급 자격을 갖춘 숙련 상담자가 지금 현재는 해당 윤리 문제 경험이 없지만 이전에 경험이 있다면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윤리 발달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이 있었는지를 묻는 방식보다는 동일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제한점을 바탕으로 상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 민감성 교육과 학회차원에서의 지침 마련에 대해 세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상담자 발달수준별 윤리교육의 내용을 다르게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슈퍼바이저들도 슈퍼비전을 함에 있어 슈퍼바이저의 윤리발달 정도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슈퍼바이저들은 초심상담자들이 제한된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상담에 대해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Thomas, 2010/2014). 또한 숙련상담자들에게는 내담자 권리와 복지를 중심에 두되 윤리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에 대한 자신감과 판단력을 믿고 자칫 윤리원칙 적용에 있어 융통성을 넘어선 자의적 해석과 적용은 내담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둘째, 상담자 윤리 교육에 있어 원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윤리적 갈등 사례를 통해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자는 매순간 윤리적 문제에 도전을 받고 있으며, 윤리강령이 모든 윤리적 갈등에 대해 행동지침을 내려줄 수 없기에 상담자 개인의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Levitt 과 Aligo(2013) 또한 상담자들이 윤리적인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개인적 가치가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하고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윤리적 갈등 상황을 사례를 통해 미리 접하고 이런 상황에서 충돌하는 윤리적 기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윤리적 판단과 대처에 대해서 미리 연습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공윤정, 2008). 셋째, 학회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현장 상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침이 필요한 영역으로 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들 수 있다. 문성원(2018)은 현행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 규정 조항들이 관련법에 비해 학회 규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담자들은 슈퍼비전과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해석 준비를 위해 내담자 관련 자료를 집으로 들고 가거나, 상담 및 녹음 파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내담자의 정보가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다. 상담자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학회차원에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윤리 문제에 대한 실태를 연구한 바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경험을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상담자들이 윤리적 행동문제를 경험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상담자의 발달수준에 따라 윤리적 행동문제를 경험하는 이유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달수준별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상담자의 발달 수준의 맥락에서 윤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참고문헌

강이영, 금명자, 조민희 (2018). 상담 수련과정에서 비윤리 경험의 실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특별호, 30(3), 495-513.

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현동 (2007). 학교상담자 윤리 교육 및 인지 실태 분석. *상담학 연구*, 8(2), 751-768.

강진령, 이종연, 유형근, 손현동 (2018). *상담자 윤리*. 서울: 학지사.

공윤정 (2008). *상담자 윤리*. 서울: 학지사.

권경인, 김태선, 조수연 (2018). 상담경력과 집단상담 윤리 인식: 한국과 미국 집단상담자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985-1007.

김계현, 문수정 (2000).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18.

김계현, 이윤주 (2002).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 능력과 상담 경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257-272.

김민정, 조화진 (2015). 교육수준, 실무, 수퍼비전 경험과 교육 분석 경험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비교연구. *상담학 연구*, 6(3), 67-84.

김현아, 공윤정, 김봉환, 김옥진, 김요완, 노성숙, 방기연, 이장호, 임정선, 정성진, 정혜정, 황임란 (2018). *상담철학과 윤리*. 서울: 학지사.

문성원 (2018). 상담 윤리와 관련 법규들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009-1034.

박한샘, 공윤정 (2011). 청소년동반자의 윤리적 갈등경험과 대처방안 연구. *상담학 연구*, 12(3), 771-791.

백미현, 유현실 (2012). 상담경력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과 소진의 관계: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3(6), 3191-3205.

손은정, 이혜성 (2002). 상담자 발달 수준별 사례 개념화의 차이: 개념도를 통한 인지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29-843.

손현동, 진명식, 유형근 (2008). 학교상담자의 전문성 수준에 따른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개념화 차이 분석. *상담학연구*, 9(4), 1801-1817.

심홍섭, 이영희 (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28.

오송희, 이정아, 김은하 (2016). 상담윤리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

- 담 및 심리치료, 28(2), 267-289.
- 우흥련, 허난설, 이지향, 장유진 (2015). 한국 상담자들이 경험한 윤리 문제와 대처 방법 및 상담 윤리 교육에 관한 실태 연구. *상담학 연구*, 16(2), 1-25.
- 이은정, 이은지, 안수정, 서영석 (2019). 기업상담자가 경험한 비밀보장 문제: 윤리적 갈등과 의사결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601-643.
- 최원호 (2008). *상담윤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최한나 (2005). 상담자 발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담학 연구*, 6(3), 713-727.
- 최해림 (2002). 한국 상담자의 상담윤리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05-828.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ACA Code of Ethics*. Alexandria, VA: Author. Retrieved from <https://www.counseling.or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2014-code-of-ethics-final-address.pdf>.
- Akfert, S. K. (2012). Ethical dilemmas experienced by psychological counsellors working at different institutions and their attitudes and behaviors as a response to these dilemmas. *Educational Sciences: Theory & Practice*, 12(3), 1806-1812.
- Canadian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Association. (2007). *CCPA Code of Ethics*. Ottawa: Author. https://www.ccpa-accp.ca/wp-content/uploads/2014/10/Code of Ethics_en.pdf.
- Corey, G., Corey, M. S., & Callanan, P. (2011). *Issues and Ethics in the Helping Professions* (8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Cotton, R. R., & Tarvydas, V. M. (2007). *Counseling ethics and decision making*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 Francis, P. C., & Dugger, S. M. (2014). Professionalism, ethics, and value-based conflicts in counseling: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2, 131-134.
- Handelsman, M. M., Gottlieb, M. C., & Knapp, S. (2005). Training ethical psychologist: An acculturation model.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6(1), 59-65.
- Herlihy, B., & Dufrene, R. L. (2011). Current and emerging ethical issues in counseling: A delphi study of expert opinions. *Counseling and Values*, 56, 10-24.
- Levit, D. H., & Aligo, A. A. (2013). Moral orientation as a component of ethical decision making. *Counseling and Values*, 58, 195-204.
- Levit, D. H., Farry, T. J., & Mazzarella, J. R. (2015). Counselor ethical reasoning: Decision-making practice versus theory. *Counseling and Values*, 60, 84-99.
- Noonan, E. (2017). The responsible counsellor and the ethics of the counseling relationship. *Psychodynamic Practice*, 23(4), 357-367.
- Orams, J. E. (2017). Counseling ethics: Overview of challenges, responsibilities and recommended practices.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9(3), 47-58.
- Patrick, R. M., Carson, M., & Mary, L. (2017). The experience of ethical dilemmas, burnout, and stress among practicing counselors.

- Counseling and Values*, 62(1), 37-56.
- Rønnestad, M. H., & Skovholt, T. M. (2003). The journey of the counselor and therapist: Research findings and perspectives on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1), 5-44.
- Smith, T., McGuire, J., Abbott, D., & Blau, B. (1991). Clinical ethical decision making: An investigation of the rationales used to justify doing less than one believes one should.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2, 235-239.
- Sperry, L. (2005). Health counseling with individual couples, and families: Three perspectives on ethical and professional practice.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22, 10.
- Sperry, L. (2007). *The ethical and professional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Boston: Allyn & Bacon.
- Stonterberg, C. D., McNeil, B., & Delworth, U. (1998). *IDM supervision: An integrated developmental model for supervising counselors and therapists*. San Francisco: Jossey-Bass.
- Thomas, J. T. (2014). 상담 슈퍼비전에서 만나게 되는 윤리적 주제들. (방기연 역). 서울: 양서원. (원전은 2010년에 출판).
- Wefel, E. R. (2005). Accepting fallibility: A model for personal responsibility for nonregional ethics infractions. *Counseling and Values*, 49(2), 120-131.
- 원 고 접 수 일 : 2019. 08. 29
수정원고접수일 : 2019. 10. 31
계 재 결 정 일 : 2020. 02. 11

The Difficulty of Ethical Behavior According to Counselors' Developmental Level

Sanghwa Jeong

Daegu University / Student

Myoung Ja Keum

Daegu University /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counselors' ethics-related experience and behavior based on counseling career developmental level and supervision experience.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using in-depth interviews with counselors, and 479 data were collec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novice counselors reported a lower frequency of ethical issues than counselors with middle and high level of counseling experience. Primary ethical issues identified were related to areas including: qualification courses, personal neglect, counselor anxiety, conflict with institutions, professional judgment, and preparation for improving counseling services. Novice counselors tended to prioritize personal convenience and qualification preparation, while more experienced counselors reported ethical conflicts related to the process of developing belief in their own professional judgment, and exerting flexibility.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ethics education and follow-up studies by developmental level are discussed.

Key words : *counseling ethics, ethical issues, counselors development level, counselors ethics development*

부 록

부록 1.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이유별 비율

문 항	보 기 항	%
1. 슈퍼바이저에게 개인상담 또는 교육분석을 받은 적 있다.	슈퍼바이저의 권유	8.61
	슈퍼바이저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기대	3.31
	슈퍼비전을 받으러 가는 길에 상담을 받으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편의성	6.62
	수련기관에서의 권유 및 10% DC 등의 경제적 이득	7.28
	슈퍼바이저의 상담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담에 대한 기대감	42.38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이므로 슈퍼바이저에게 부탁	31.79
2. 카톡 등 SNS를 통해 내담자와 사적인 연락을 하였다.	상담일정을 잡거나 장소 등 연락의 편의성	77.63
	안전여부 확인 등 위급 상황 대처	10.96
	과제 제시 및 점검	0.44
	학교나 기관을 통한 연락의 번거로움	1.75
	관심이나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2.19
	학부모와 연락	3.51
	종결이후 안부가 궁금하여 연락	2.19
내담자 관심분야나 대인관계 등의 정보탐색	0.44	
3. 상담회기 녹음 및 기록에 관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동의절차를 잊어버리고 놓침	61.82
	내담자가 혹시 녹음을 거부할까봐 걱정	23.64
	내담자가 녹음 상황이 부담스러워 진솔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봐 우려	9.09
	상담자가 미리 녹음할 수 있는 도구(핸드폰, MP3 등)를 준비하지 못함	5.45
4. 상담 기록지를 따로 USB 또는 개인메일에 보관하고 있다.	업무량이 많아 집에 가져가서 기록하기 위해 보관	35.90
	슈퍼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자료 보관	54.81
	상담 준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이전 자료 보관	6.73
	종결이후 내담자가 재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보관	0.32
나의 내담자이므로 내가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보관	2.24	
5. 동료 상담자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공유하였다.	상담 진행과 관련하여 동료의 의견과 도움을 요청	86.79
	상담에서 느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	6.47
	상담의 어려움에 대해 동료에게 공감받고 위로 받는 경험이 필요	4.31
	현실적으로 슈퍼비전을 바로 받기 어려운 상황	2.43

부록 1.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이유별 비율

(계속 1)

문항	보 기 항	%
6. 상담 회기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소속된 기관에서의 많은 업무량으로 소홀	38.31
	내담자가 상담 기록이 남는 것에 불안 호소	16.88
	개인 업무와 개인 사정으로 소홀	24.03
	내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회기 기록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님	12.99
	동료 및 슈퍼바이저 등이 기록을 열람할까봐 우려	1.30
	동료 및 슈퍼바이저 등이 기록을 열람할까봐 우려	5.19
	중요회기만 기록해도 괜찮다고 여김	1.30
7. 정식 훈련을 받지 않은 상담기법이나 상담방법을 사용하였다.	훈련받지 않아 다소 부족하지만 내담자에게 이론적으로 맞는 기법이라는 판단	70.79
	다양한 기법과 방법을 시도해볼 기회를 갖고자 하는 욕구	12.36
	스스로 공부하여 내담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 되었다는 판단	8.99
	교과과정에서 대부분 다루어진 내용이기에 석사과정 이상이면 모든 기법을 사용 가능하다고 보았음	7.87
8.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담자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나 교육을 받지 않은 적이 있다.	개인 사정 및 개인 업무가 바빠서 시간적 여유 부족	59.20
	기관의 업무가 바빠서 휴가를 내기 어려움	18.41
	차비나 참가비 등 경제적 부담	14.93
	연수나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6.47
	수퍼비전을 통하나 교육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	1.00
9. 상담자의 스트레스로 심리적, 신체적 상태가 소진되었을 때도 상담을 한 적 있다.	기관의 소속이므로 현실적으로 상담을 취소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움	70.68
	내담자와의 약속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생각	24.66
	내담자가 상담 연기 및 취소하는 것을 거절로 여길까봐 우려	1.64
	내담자에게 불성실하다는 인상을 줄까봐 걱정	1.10
10. 자신이 다룰 수 없는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하였다.	상담자의 사유로 상담을 취소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고 여김	1.92
	배정된 사례에 대해 일단 맡는 것이 책임감 있는 태도라 생각하였음	37.85
	기관에서 배정한 것이어서 거절 어려움	21.91
	거절하면 무능한 상담자로 비취질까봐 걱정	2.39
	사례를 맡지 않으면 상담이 연기될 수 있기에 내담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생각	2.39

부록 1.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이유별 비율 (계속 2)

문항	보 기 항	%
	사례를 맡을 다른 상담자를 찾기 어려움	15.94
	수퍼비전 받으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	12.75
	위기상담 등 즉시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였음	5.98
	기타	0.80
11. 상담의 성과가 없는데도 계속 상담을 진행하였다.	내담자가 거부 또는 거절당했다고 인식할까봐 우려	15.88
	수퍼비전 받으면서 계속 진행하면 될 것 같았음	34.66
	조금만 더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	20.94
	중간에 다른 상담자에게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판단	7.22
	상담자 자신이 무능해 보일까봐 우려	4.69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여 계속 진행	15.52
	기타	1.08
12. 내담자와의 상담 약속을 상담자가 먼저 취소하거나 변경하였다.	기관의 공식적인 회의 일정이나 행사 등	72.14
	상급자의 요구에 대해 거절 어려움	1.67
	상담에 대한 내용 또는 도구 준비가 미흡	1.39
	지나친 업무량으로 상담 준비 미흡	3.62
	개인사정 또는 개인 업무 과다	20.61
기타	0.56	
13. 훈련 받지 않은 심리검사를 실시 또는 해석 한 적이 있다.	내담자에게 필요한 검사라는 판단	37.40
	공부하고 배웠던 것을 한번 실시해보고 싶었음	13.82
	비교적 간단한 심리검사라고 생각되어지는 검사인 경우는 훈련받지 않고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음	17.07
	학회가 요구하는 심리검사 수련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 경험이 필요	9.76
	실시 요강 및 해석 안내집을 참고하여 진행	20.33
	상담의 보조역할로 심리검사를 하였기에 전문가가 아니어도 실시, 해석해도 괜찮다고 생각함	1.63
14. 상담 회기 기록 등 내담자 관련 자료를 상담실 밖으로 가지고 나온 적이 있다.	상담 및 심리검사 해석 준비	59.09
	기관의 업무를 집에서 해야 할 경우	14.77
	수퍼비전 사례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	21.31
	현실적으로 기관이나 센터에서 회기 기록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음	3.98
	기관의 일을 그만두고 진행 중인 사례를 계속 맡게 되는 경우	0.85

부록 1. 윤리적 행동문제 경험 이유별 비율

(계속 3)

문항	보 기 항	%
15. 상담이 종료된 후, 기관의 보관 규정 기간이 지난 상담 파일 및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	사례 개념화 등 상담 공부를 위해 자료를 남겨두었음	47.19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없애기 불안	29.78
	참고할 것이 있을 것 같아 일단 보관해둠	6.18
	잊어버리고 미처 정리하지 못했음	12.92
	내담자가 혹시 재방문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준비	1.12
	기타	2.81
16. 내담자의 동의 없이 그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은 적 있다.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추기 위해 슈퍼비전이 필요한데 내담자가 거절할까 봐 우려	24.12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슈퍼비전이 꼭 필요하지만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음	15.88
	종결 이후여서 다시 연락하기 번거로움	22.94
	내담자가 자신의 사례가 공개되는 것을 걱정하여 방어적이거나 소극적인 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6.47
	상담초기 구조화할 때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30.59
17. 슈퍼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안 받은 경우가 있다.	사례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50.00
	슈퍼비전 비용에 대한 부담	26.19
	상담사례 개입에 대한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는 힘겨움	2.04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요청하는 것의 어려움	2.72
	슈퍼바이저로부터 상담에 대해 평가 받는 것을 회피	0.34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음	1.02
	동료 슈퍼비전을 통해 해소	7.14
	개인적 업무나 개인사정으로 슈퍼비전을 받는 시기를 놓치거나 미룸	7.48
내담자가 슈퍼비전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2.04	
18. 축어록 작성 시, 실제 상담 내용의 일부를 슈퍼바이저에게 숨기거나 수정한 적 있다.	100% 똑같이 축어록을 작성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	53.72
	너무 부끄러운 부분을 내보이는 것이 싫고 숨기고 싶은 마음	28.10
	슈퍼바이저에게 상담진행에 대해 안좋은 평가를 받을까봐 우려	6.61
	나의 약점을 슈퍼바이저에게 보이기 싫음	0.83
	내용 흐름에는 무리가 되지 않은 수준에서는 약간의 수정은 괜찮다고 여겼음	7.44
	상담자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1.65
기타	1.65	